

오는 10일 경, 종로에 또 하나의 대형서점이 들어선다. 지하철 종각역과 연결되는 종로타워 지하에 들어서는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가 그곳. 이를 두고 종로서적 폐업 이후 대형서점의 종로 3국 시대가 부활했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가 주도하던 대형서점기에 서울문고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삼파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디앤루니스 강남구 코엑스점의 개설을 도맡았던 서울문고 김종화 이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종로타워점의 추진위원장이다.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다른 서점과 차별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오가는 노력과 발길이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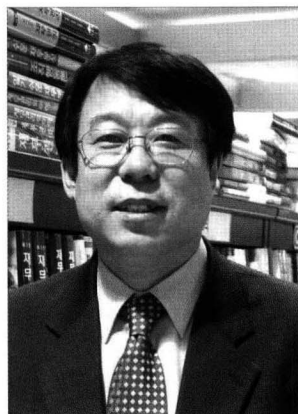
“강남점을 개장할 당시 ‘소비자 중심적인 서점’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존 국내 서점은 모두 일본식에 가깝죠. ‘일본식’이라는 것은 통로가 좁은, 판매자 위주의 서점을 말합니다. 많은 책을 팔기 위해 한정된 공간 안에 벽처럼 책을 쌓지요. 이는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반대로 미국식 서점은 서가 사이의 통로를 넓게 확보해 이동이 쉽도록 하고 도서관매에 있어서도 셀프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착안한 김 이사는 서울문고도 종전의 서점형태를 과감히 탈피할 것을 주장, 소비자 중심의 형태를 갖추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다. 프린터를 호환한 도서검색대도 은행 내 번호표에서 얻은 김 이사의 아이디어로 설치된 것이다.

종로타워점 개설은 종로야말로 전통적인 국내 ‘출판문화1번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고려한 결과다. 종로서적의 붕괴로 서울문고가 ‘들어셔야 할’ 당위성도 작용했다. 그러나 “책을 팔려는 목적뿐이라면 종로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란 게 김 이사의 얘기다. 서점으로서의 역할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문화욕구에 부합하겠다는 의미다. 건물주인 삼성측과도 이런 의견을 공유하며 일을 진행하게 됐다.

“사회적으로 문화를 운운하지만 사실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웬만한 뮤지컬이나 공연에 두어 명이 어울려 가면 돈 십만원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은 그런 점을 감안,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화,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직원들에게 ‘악착같이 책만 많이 집어넣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객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작업에서도 그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강남점과 같이 서점 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분위기 있게 커피를 즐길 수도 있도록 적당히 어두운 조명을 설치하는 한편, 창가 쪽에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천연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반딧불’과 ‘달빛’을 의미하는 서점이름을 상징하도록 전등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다.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추진위원장 말아
책이 있어 즐거운 서점, 즐거운 서점, 즐거운 서점
종로의 문화천국 이끌어 지하의 「작은 문화 단지」

그는 “종로타워점은 강남점에 비해 좀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서점 앞에는 무대가 있는 공간이 넓찍이 자리 잡고 있어 각종 문화행사를 열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방대한 서가를 만들어 해방 이후의 책들을 모아 전면 진열할 계획이죠. 가칭 ‘한국출판역사관’입니다. 그 책들을 수집하는 게 만만찮은 작업이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 통로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곳이니 많은 발걸음이 오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중·소 서점의 붕괴, 도서정가제 등 출판계 현안을 아울러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는 “양질의 도서가 주목받지 못하고 망가지는 출판문화를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도서진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생출판사의 자리를 마련해, 이른바 잘 나가는 도서 위주의 레이아웃을 피할 방침이다.

“지나가는 길이라도 좋으니 친구를 만나 수도도 떨고 책도 마음껏 보십시오. 책도 즐겨워야 하지만 책을 사러가는 것도 즐겨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화가 시작되는 작은 단지로 꾸러가겠습니다.”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